

보성군, 명문대 진학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 입증

서울대·의치약한·KAIST·GIST 등 상위권 대학 71명 합격

교육발전특구 및 전남 유일 자율형 공립고 2.0 성과 가시화

보성군은 2026학년도 대학 진학 결과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대학교와 우수학과 진학률이 2020학년도 7.6%에서 2026학년도 31.8%로 7년 만에 4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관내 고교는 서울대 1명, 의·치·약·한의대 4명, KAIST·GIST 등 특성화대학 4명, 교육대 1명을 포함해 서울·경기·인천 등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에 총 7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관내 고교 3학년 졸업생 238명 중 231명이 대학에 진학해 전체 진학률 93.6%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대입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대입 성과는 보성군이 보성교육지원청과 보성고·발교고·예당고 등 관내 고등학교와 협력해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학교장 간담회, 지역민 주체 교육발전

포럼, 장학사업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25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에 이어, 보성고등학교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로 선정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보성군은 연간 최대 3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지자체 - 고교 - 대학이 연계된 보성형 교육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사업인 △스마트 농업 기반 인재 양성, △차(茶) 산업 연계 교육, △농수산·문화관광 특화 교육 등을 통해 계열별 진로 탐색과 방과후 심화 학습이 강화되며 상위권 대학 진학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으로 보성고등



학교는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자사고·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심화·장의 학습, 진로·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 3억 원 규모의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시 프로그램 운영, △교과목·예체능·탐구 분야 심화 학습, △전문가 초빙 자기소개서 특강, △진

로·면접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대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장 재량을 바탕으로 각 학교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었던 점이 핵심"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 2.0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완도군, 70억 투입 바다비 체육센터 건립한다

2027년 준공 예정,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완도군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바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바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이 제약 없이 주도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체육 시설로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되며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바다비'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마스코트에서 이름을 따왔다.

군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완도군 체육공원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660㎡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 내부에

는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개인 보관함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4월 착공 예정이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바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환 체육진흥과장은 "모든 군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회 통합형 체육 환경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

결혼하면 최대 400만 원 지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

전남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형 결혼축하금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연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형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이 곡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0만 원을 일시 지급

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

결혼하면 최대 400만 원 지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

한다. 곡성형 결혼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형 결혼축하금을 받은 부부 또는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나 전남형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부에게 연 1회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형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모두 받을 경우, 부부당 최대 400만 원(3회 분할 지급)의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전남형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며, 곡성형은 전남형 수령 여부에 따라 단계별 신청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결혼축하금 지

완사읍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사업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결혼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및 곡성군청 인구정책과(☎360-29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강진군, 2026년 수도작 안정망 대폭 강화

직불·경영안정·재해보험 연계 '소득·위험 관리 패키지' 본격 가동

강진군이 2026년 수도작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과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경영안정자금, 각종 보조사업, 재해보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방위 농업 지원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6년 수도작 지원정책은 단일 보조사업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보전 - 경영비 절감 - 재해 위험 관리를 동시에 아우르는 '소득·비용·위험 관리 패키지' 구조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벼 재배 농가는 직불금, 경영안정자금, 농어민수당 등 보수적으로 산정하던 하당 340만 원 수준의 직접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직접 지원 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130만 원, 일반농 ha당 170만~215만 원) ▲전략작물 직불금(논에 가루쌀·두류·조식료 재배 시 ha당 50만~5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ha당 57만~95만 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 ▲경영안정자금(도비보조 ha당 48만 원, 지자체 ha당 92만 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상

향해 지급된다. 군은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가 소득 불안 요인을 고려해 공익수당을 인상했으며, 경영체당 연 70만 원을 정책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기본 소득 안정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군은 ▲고품질 쌀(관행) 장려금 40kg 포대당 1,000원 ~ 1,500원 ▲고품질 유기농 쌀 출하 장려금 40kg 포대당 4,000원을 지원하고, 상토·육묘·포장재 등 벼 재배 농자재를 ha당 19.5만 원 규모로 지원한다.

병해충 방제와 재해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친환경 논에는 왕우렁이를 공급해 잡초 방제를 지원하고(ha당 12만 원), 우렁이 피해 예방 약제도 ha당 25만 원 한도로 보조율 80%를 적용해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 논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객토 사업을 추진해 ha당 754만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보험료의 90%),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각종 보험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비한 위험 관리 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군, '3대 가족' 함께 살면 효도수당 드립니다

설·추석 명절마다 20만 원씩 지원... 3대 이상 가정 부양자 대상

담양군이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명절마다 지원하는 제도로, 설과 추석이 각각 2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

담양군, '3대 가족' 함께 살면 효도수당 드립니다

설·추석 명절마다 20만 원씩 지원... 3대 이상 가정 부양자 대상

정으로,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구성돼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 가구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

무안군, 치매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태그 무상 보급

실종 예방·신속 발견 위해 위치 확인 기기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돕기 위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태그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태그는 보호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대상자의 위치 확인과 이동 경로 기록, 소리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하는 소형 기기로, 가방이나 목걸이, 신발 등 사용자 편의에 맞게 휴대할 수 있

무안군, 치매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태그 무상 보급

실종 예방·신속 발견 위해 위치 확인 기기 지원

다. 이번 사업은 무안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와 치매안심마을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된다.

무안군, 치매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태그 무상 보급

실종 예방·신속 발견 위해 위치 확인 기기 지원

스마트태그 보급을 통해 실종 위험을 줄이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속 건강증진과장은 "스마트태그 지원은 치매 환자 가족의 불안을 덜어주

완사읍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터 11일까지 기존 대상 가구에 대한 거주 여부 및 부양 상태 등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을 응원하고, 세대 간 화합과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어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풍만한...
 고유의 색을 가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언더 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